

## 광주 '1.5단계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광주시, 16일까지 유지...이부 업종 민생 경제 감안 완화키로  
 유흥업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 1시간 연장  
 종교활동도 좌석수 30%로 확대... “기본 수칙부터 지켜야”

지역 내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현행 '1.5단계' 수준을 일주일 더 유지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전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됐던 일부 업종에 대한 민생 경제를 감안, 완화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로 1시간 연장된다. 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식당·카페도 해당 시간대에는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종교활동도 좌석수 20%로 제한한 입장 인원을 30%까지 늘린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새롭게 마련된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1명으로, 직전 주(4월 25일~5월1일)의 9명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1.5단계 거리 두기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지역 고등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 6일에만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발 바이러스 확산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종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보듯 조금의 방심이 다수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감염은 학교, 독서실, 사우나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 발현 이후 진단 검사에서 확진돼 정확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예방은 방역 수칙 준수다”며 “손씻기·주기적 환기·불필요 외출 안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동취재본부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는 가운데 9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 이마트 경산점에서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가 판매되고 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집 앞에서 판매한다

이마트·GS25·올리브영 등 판로 확대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용항원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 이마트는 지난 6일부터 성수·왕십리·영등포점 등 수도권 70여개 점포에서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2입)' 초도 물량 약 5000개를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1만6000원이다.

이후 10일부터는 본격적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8일부터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리브영도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

트를 판매했다. 올리브영은 공식 온라인몰 및 전국 주요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판매에 나선다.

편의점 GS25는 지난 5일부터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7일부터는 GS슈퍼마켓, 팔라블라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세븐일레븐과 CU도 같은날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만큼의 바이러스 채취가 어려워 정확성에서 떨어진다 단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증상이 발생했을 때도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명백한 특혜...광주시민·사법부 우롱”



오늘 첫 항소심 재판 불출석 밝혀  
 5·18단체 한 목소리로 거세게 비판  
 “만인 앞에 평등...법정 구속 필요”

판 절차 자체를 궤변으로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불출석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다. 구인장이라도 발부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아무리 고령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은 (전씨를) 구속해야 스스로의 죄를 돌이켜보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김이중 5·18부상자회장은 “법 절차를 구구절절 해석하는 데 있어 여지가 있을 지 모르나,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하려는 전씨의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자신을 비롯한 신군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한 전씨에게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재판부마저 농락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기일 만큼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전씨가 자신의 임종 전까지 처벌을 피하고자 온갖 알뜰한 수를 쓰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만이 아니다. 역사의 심판이다”며 “진행 중인 진상 규명과 함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씨 생전에 죄를 끝까지 물어 법적 단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오월여머니집 사무총장은 “전씨가 5월 광주법정에 선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풀이하며 “5·18 당시 계엄군의 폭압에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민, 전세계가 지켜보는 재판이다. 전씨의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공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희기자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당초 직접 법정에 나올 듯 했던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송법 범죄 검토 내용을 근거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오월단체는 한 목소리로 “광주시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성토했다.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전씨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9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피고인 출석 없이 할 수 없는 재

## 수해로 파손된 전남 도로 179곳 중 85곳 복구 완료

올해 우기 전까지 79곳 추가 복구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파손된 도로 179곳 중 85곳의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내린 655.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곡성과 담양 등 12개 시·군 도로 179곳에 총 10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예산 381억원을 들여 85곳

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94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79곳은 올해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다만 절대공기가 필요한 15곳은 우선 안전 조치를 한 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7일 일선 시·군 도로 분야 수해복구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정환기자

곡성군

# #랜선곡성여행

##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mailto: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